

저는 “주님과 동행하려면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그 길을 가려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디가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한 노인이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미처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안내자에게 ‘그만 포기합시다. 다시 산 아래로 내려다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안내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곧 폭풍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 말을 믿고 계속 걸어갔더니 정말 여름날의 저녁과도 같이 고요한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골짜기 아래에서는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치고 천둥이 치며 번개가 번쩍거렸지만, 산꼭대기는 안내자의 말처럼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사탄의 꾀방 때문에 사방이 캄캄하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의 길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그 어두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사실은 매우 복되고 기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주리고 목마르고, 고통의 눈물을 쏟는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뜨이면,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게 된 바울은 뜻하지 않게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독사에게 물린 바울을 살인자로 규정하고,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라 말하며 그가 공의 심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아무 이상 없는 그를 보자 그가 ‘신’이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지 않았던 실제 이유는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불순종하거나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자신의 ‘마음’입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사명의 끝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저희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강북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 등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❶ 이번 주에 있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❷ 다음주일은 설 연휴관계로 2부(11시) 예배만 드리고, 오후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이번주 금요기도회도 모이지 않습니다,

❸ 주보 안에 넣어드린 2월 중보기도카드 기도제목을 보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주 식당봉사 - 6셀 ▶ (2/18일) 식당봉사 - 5셀

◆ 2월 행사 일정

일	교회행사
2/15~16	청년부 동계수련회
2/23~24	청소년부 동계수련회

◆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충원
- 부교역자 : 강성찬
- 교육간사 : 이지영
- 행정간사 : 정동배
- 시무장로 : 조태형 권일석
- 은퇴장로 : 장순산 김수근
- 성가지휘 : 전영희
- 반주자 : 이소희 홍숙의

◆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유 치 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청소년부	오전 9: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청 년 부	주일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밤 9: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